

사·부·대·중

정보의 제자리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근래 교계의 불교 문화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직지심경(直指心經)>을 세계기록유산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본다. 나에게 <직지>는 제3회 청주국제인쇄문화학술회의에 토론

받기 위해 신양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손으로 지켜져야 하고 신앙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가운 박물관의 전시실, 혹은 수장고 안에 침묵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후손으로

자로 참석했던 인연이 있기도 하다. 백운경환(白雲景煥)의 찬술로 세칭 '직지, 직지심경'으로 불리는 이것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교계에서는 도난문화재를 찾는 운동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내 도난 문화재 중에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주요문화재들이 인터넷과 미연방수사국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수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옛날 어찌된 사정 이던지 간에 사찰의 성보가 나라의 박물관에 소속되어,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속칭 불교문화재라고 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주지삼보(住持三寶)인 신앙의 대상으로서 성보이다. 따라서 마

땅히 우리네 신앙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손으로 지켜져야 하고 신앙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가운 박물관의 전시실, 혹은 수장고 안에 침묵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후손으로

서 죄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말지 않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진다. 박물관은 수많은 수장물로 정물 두 손에다 심지어는 머리 위에까지 올려 놓아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속사정이니 박물관 이전 과정에서 이제야말로 우리에게 성보를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박물관 환경이 '문화재 지킴' 차원에서 더 우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보문화재는 엄밀히 불교 신앙의 대상이며, 신앙의 현장에 있을 때,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한 번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살이만 하는 못난 후손이나 이번 기회에 꼼꼼히 생각해 보고 돌려 받을 수 있는 성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부터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자로 참석했던 인연이 있기도 하다. 백운경환(白雲景煥)의 찬술로 세칭 '직지, 직지심경'으로 불리는 이것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교계에서는 도난문화재를 찾는 운동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내 도난 문화재 중에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주요문화재들이 인터넷과 미연방수사국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수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옛날 어찌된 사정 이던지 간에 사찰의 성보가 나라의 박물관에 소속되어,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속칭 불교문화재라고 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주지삼보(住持三寶)인 신앙의 대상으로서 성보이다. 따라서 마

“스님 노후복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문중없고 사재없고, 돈 없는 스님들은 노후가 걱정이다.’

1달 전 조계종 소속 모 사찰의 젊은 스님이 거동이 불편한 91세의 노스님을 서울 시내 한 동사무소에 맡기고 사라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사무소에 접수된 이 사건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불교계 노인복지관련 시설에 수용여부를 논의했지만, 수용이 어려워 모 사찰에서 모셔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스님들의 개인 측재 등 비리의 근본원인으로 간주되며 잠복되어 온 스님 노후복지 문제의 심각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이 사건은 스님노후 대책의 시급함을 웅변하고 있다.

지금도 무료양로원에는 오갈데 없는 노스님들이 일반 노인들 틈에 끼어 서글픈 생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평생을 수행에 전념하며 곳곳이 한 길을 걸어왔지만, 말년에는 의탁할 곳이 마땅치 않은 스님들이 의외로 많다. 건강이라도 좋으면 인연따라 소위 ‘뒷방’이라도 거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몸이 아파도 선택 아파드는 말조차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스님 노후복지의 현주소다.

●노후가 걱정

65세이상 스님 9.2% 수용시설 절대부족

“승려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중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스님 개개인 수행·포교에 전념하기 보다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찰 사임을 지어 개인 소유화하는 경향이 확대되어 삼보장제가 수행과 교육·포교·사회사업 등 중년 목적사업으로 회화되지 못하고 개인 노후대책 자금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승려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관련내용의 일부다. 스님 노후복지 대책의 시급함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중앙종회가 이처럼 스님 노후복지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스님들의 고령화 추세, 수행과 포교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계종 스님 1만 2,000명 중 65세 이상의 노스님이 9.2%(1,062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는 근거다.

99년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한 ‘승가복지에 관한 조사분석’에 따르면, 스님들은 중년에서 해야 할 승가복지 사업으로 스님 전용병원의 설립(31.3%), 노스님 수행원 건립(26.8%), 의료보장(17.5%), 노후연금(14.5%) 등을 꼽아 절반이 넘는 스님들이 의료혜택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응답자의 43.7%의 스님들이 노후와 건강을 염려해 보험과 연금, 저금을 들고 있으며, 38.6%의 스님들은 자활능력도 없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드러난 것도 스님 노후복지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스님복지 현황

연금제-복지원 설립 예산부족 추진 불발

조계종의 스님 노후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원론에 그치고 있다.

종헌 제116조에 ‘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승려 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고 규정. 83년 ‘승려 노후복지원 설치령’을 공포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90년 불국사 복지원 시범설치, 94년 조계종 의료공제회 추진, 96년 ‘스님 노후연금제’ 실시, 99년 승려 노후복지원 설립 등이 추진되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좌절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8월 중순경 승려 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 다른 종교의 성직자 노후복지 사례 등을 담은 ‘승려 노후복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승가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입법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은 사찰 수가 3,000여개에 이르지만 1,062명의 노스님 중 일부 스님들은 거처가 마땅치 않은 것은 물론 의료혜택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계종에서는 유일하게 비구니 노후복지시설인 법계사가 있지만 그나마 종단의 공식적인 복지시설은 아니다. 자제정사와 성라원, 수덕사 견성암, 선원사 등에서 10명 내외의 노스님들을 모시고 있는 정도다.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 종단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연금제도, 실버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진각종과 총지종은 교회일선에서 퇴직한 원로 스승들을 위한 기로원(耆老院)을 각각 설립하고 원로스승들의 원만한 수행, 봉양(연금 지급, 간병, 입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스승노후복지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해외이웃 종교는

태국-미얀마 노후 보장 타종교 시설-제도 양호

이웃 불교국가의 스님들의 노후 대책은 철저하다.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이 수행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의식주와 의료혜택에 따른 각종 복지정책이 사회정치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소유’가 가능하다. 불교중앙병원이 있는 홍콩이나 대만의 자제공덕원에서는 스님들의 진찰·입원·요양비가 전액 무료다.

원불교와 가톨릭의 경우는 성직자의 노후



◁4백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비구니 노후복지시설 논산 법계사.

전국 유일 비구니 노후복지시설 논산 법계사

432명 수용 가능 운영 어려움 ‘호소’

승려 노후복지시설이 전무한 가운데 충남 논산군 양촌면 오산리 대둔산 기슭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비구니 노후복지시설인 법계사(주지 지경)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총 432명의 스님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도 재정난을 겪고 있어 종단과 불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법계사는 아직 시설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님과 신도들의 헌력으로 불사를 진행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

인 등록과 조계종 공식 비구니 노후복지시설로의 등록,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경영난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계사는 4,600여명의 부지에 8정도 모형을 3·4층의 아파트형 건물 6개동으로 구성된 화엄동과 금화원에 모두 108개의 별실과 선방, 지대방,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대웅전과 산신각을 별도로 건립했다. 현재 30여명의 스님들이 선방에서 규칙적으로 참선을 하거나 법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안거가 끝나 다른 절로 공부하러 간 스님들이 돌아오면 대웅은 70여명에 이른다. (041)741-9800

복지가 더욱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

원불교는 교정원 산하에 공익부, 그 아래에 교역자 복지를 담당하는 후생사업회가 있어 교역자의 경우 원광대 부속병원 및 한방병원을 통해 개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받고, 정년퇴임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수도원이 8곳이 있다.

가톨릭은 사제공제회에서 매월 1만원 또는 연 10만원의 공제회비를 바탕으로 2년에 한번 종합검진, 본인의 청원에 따라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독교장로회의 기독교 대한합리회도 노후 및 의료보장을 위해 공제사업과 연금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전도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종단대책 절실

복지 재원 마련 ‘과제’ “사자상승 전통 잇자”

전문가들은 스님 노후복지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연금 지급 △구구본사별 노후복지원(본·말사 노스님 처소 의무화) △승려종합복지관 설립 △불교종합병원의 설립, 활

성화 등을 제안한다. 적절한 운동과 좌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수행 프로그램, 체제를 갖추고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님들의 노후대책을 종단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제까지의 조계종의 실패를 감안할 때 역시 재원 마련이 승려 노후복지의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종단적인 공감대를 얻고 노후복지기금을 종단에 산안에 반영할 수 있을 때 실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인덕노인복지회관 관장 성운스님은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요구되며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중앙차원에서 본사별 승려노후복지원, 승려치매중증센터 등을 시범적으로 건립, 운영하는 불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미 오랫동안 절집안에서 전해내려 온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 노스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는 일은 제도적인 보완과 실천에 앞서 이뤄져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지역법회에 거는 기대

한 명우 (취재1부 기자)

조계사가 7일 서울 인천·경기도를 아우르는 지역법회 창립식을 가졌다. 한국사찰을 대표하는 조계사가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여기서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조계사는 지역법회 창립 이유에 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수행활동 및 수행 집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역 포교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는 신도를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포교하고 수행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법회를 처음 도입한 사찰은 서울 송파구의 불광사다. 26년전 신도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 송파구내 불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불광사의 지역법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과 인천 지역을 포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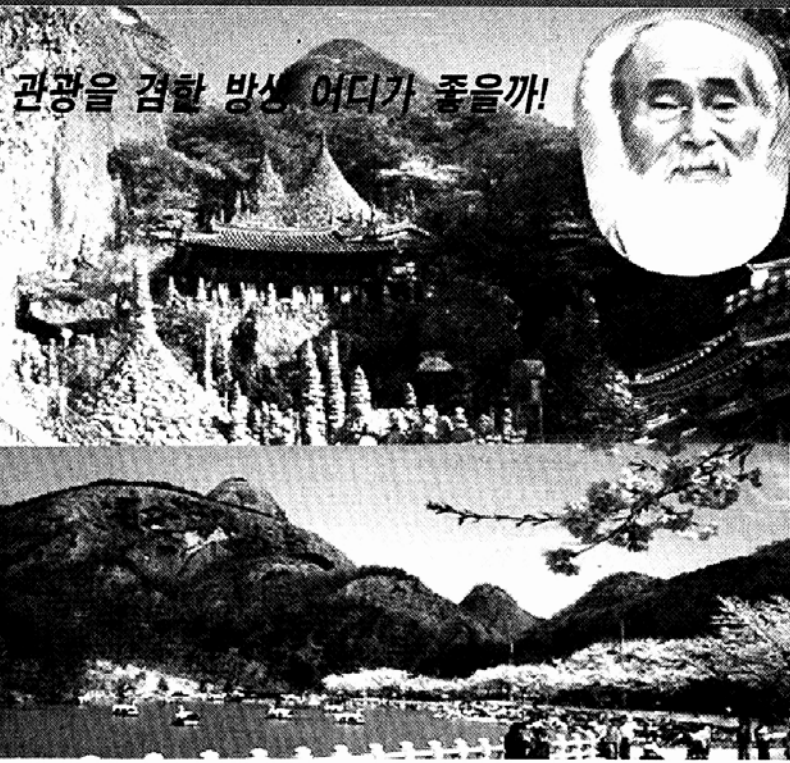
는 41개 권역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서울의 봉은사, 능인선원, 구룡사 등 주요 사찰이나 포교당들도 오래전부터 지역법회를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들 사찰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법회의 이점을 강조했다. 신도관리는 물론 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불자들 스스로 배우고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역법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율적인 신도활동이다. 불자들이 스스로 자질을 함양하고, 불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것은 불교가 제 역할을 하고 또 발전을 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다.

조계종 직할교구인 조계사가 나선 만큼 각 지역의 교구본사들도 지역법회 운영을 적극 검토하길 권한다.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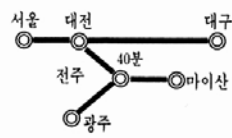


관광을 겸할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설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신사년 윤달든 생전예수제 및 특별백중영가 중음신 해탈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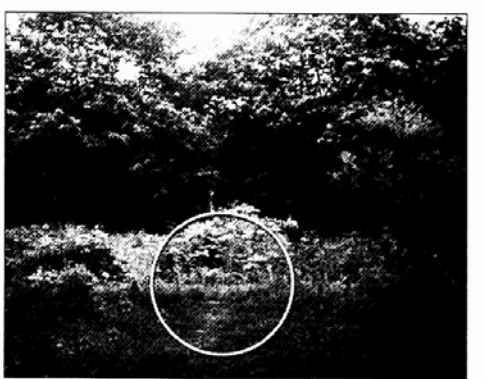
후천미륵달마법도와 500지장달마 500나한달마조성 해탈법도로 지구탄생 이래 유불선 모든 종교를 초월 전생, 금생, 내생에 까지 해탈못한 조상영가 모태영가 유산영가 외가영가 처가 친정영가와 일체 중음신 알고 모르고 살생한 재업과 조상 조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영과 혼들이 알아들으면 즉시 해탈하는 경의 법도로써 못다살고 죽은 조상영혼들이 이경을 한번 읽는 소리만 들어도 산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하늘의 법도경은 예단경 천지인경 수생경으로 입제하여 기도해탈하오니 두루동참하시어 자손된 도리와 효도로써 백중 49제와 생전예수제기도로써 명산대할 봉정암에서 금강경 수행정진으로 득도한 법제근스님 집전으로 이어지며 이 기도에 동참한 공덕으로 본인 집안의 법장소멸은 물론 각종 행액과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후천달마법도와 500지장달마 및 500나한법도로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인연에 모든고해를 초월하여 업장소멸은 물론 무병장수 부귀영화 소원성취하시어 만세 태평하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못다이룬 일을 몽땅 이루소서.

- ✦ 입제 : 양력 7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 입제
✦ 7 제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천도법회
✦ 영가 일위당 일금 일만원(내내없이 동참할 수 있는 금액)
* 특별 영산대제 하실 분은 별도로 상담
✦ 생전예수제 : 가족 일인당 일금 일만원
✦ 팩스 : 02)821-7768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과대일 선착순 동참 02) 821-6622 / 821-7767 / 016)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동적구약사회공동육구

약사도량 달마선원장 泰日法師

명당터. 가액 10억 매매 명당은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나요?



▷사진설명: 울진읍으로 저수지 물을 먹고 등천할려고 울민인 용의 자리인 명당으로 금시 발복할 수 있는 명당터

◆ 장소 :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위 사할 밑에 약 2000천평 고급법장 사할 묘지 호도할 수 있는 기회!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묘지 명당은 부모 조상님 본인 지선만대 부귀 공명할 할 수 있는 명당터로써 가족 묘지, 러브호텔, 고급가든 여관 호텔터로써 인연있는 자와 직접 매매, 중개인 사절합니다.

* 현재 대학로의 첫업준인 초원의 집을 아십니까? 명품나 정년퇴직자 식당사업에 뜻이 있는 분이냐 경험이 없는 분이이라도 즉시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공명히 인간 관계로 보재기 많쓰시고 직접 경영인과 인수인계할 수 있는 절호의 식당사업! ·가액 : 상당과 동시에 저렴한 가격 ·직통 : 02)766-0228 / 911-3106 / 017) 741-3106 ·주인직접 : 교범, 해련심 (상담요망)